



최종원(서울신대)

1. 들어가기

8세기 문서예언자로서 아모스는 각각의 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징벌을 예고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서너 가지 죄”라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 표현은 ‘메신저 선포 공식’(Botenspruchformel) 안에서 징벌에 대한 이유를 한층 강화시켜주며, 징벌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²⁾ 특히 이 역할과 함께 “계단식으로 배열된 수열”(gestaffelter

1)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인 J.-W.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212-272를 보충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메신저 선포 공식”에 대한 고대 근동의 문학적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차준희 편저, 「구약예언서 이해」,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97-104. 아모스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최종원, 「아모

Zahlenspruch)에 대한 이 표현이 지혜 문학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³⁾ 이것은 과연 지혜 문학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징벌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아모스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1-2장)은 분명 징벌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수열이 징벌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다만 강조를 위한 표현인가? 아니면 의도된 문학적 표현인가?

본 논문은 신명기 계약 신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아모스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해 보며,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문제제기

1) 서너 가지 리는 표현이 지혜서에서 죄를 지적하고 징벌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 있는가? 만일 그러한 본문이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가?

2) 없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각각 이방국가에 대한 죄 지적은 한 가지에 머물러 있고, 그 징벌 역시 불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상 클라이막스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죄의 지적과 징벌에 대한 내용은 일곱 가지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학적 특성이 '서너 가지 죄들'이라는 문학적 표현과 연관을 맺고 있는가?

4) 이방 국가를 향한 신탁은 유대와 이스라엘 신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본문에 대한 편집사적인 비평 방법이 주류를 형성했다. 몇몇 학자들은 문학 비평의 시도로 편집비평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했으나 해

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3권 4호 (2017년 12월), 119-149.

3) H. 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AT Bd. XI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5), 166-168.

결하지 못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들과 비교하여 구성사적인 비평과 문학 비평적 방법으로 접근해 보 고자 한다.

2. 연구사: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에 대한 몇 가지 논쟁들

지금까지 이방민족에 대한 신탁 본문의 주요한 논쟁은 편집사적인 질문에 집중해 있었다. 그것은 본문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문학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⁴⁾ 이 논쟁의 주요 질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유다 민족에 대한 신탁과 함께 두로와 에돔 민족에 대한 신탁이 본문에서 구성사적인 의도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본문의 형태(Form)를 통하여 두로 (1:9-10)와 에돔 (1:11-13) 그리고 유다(2:4-5)에 대한 이방 민족 신탁은 일반적으로 이차적인 본문으로 판단한다. 이 가설에 의하여 최초 이방 민족에 대한 징벌을 보도하는 원본문을 찾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다.⁵⁾

둘째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신명기 23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형제로서의 속성”(Eigenschaft als Bruder)이라는 주제가 본문의 에돔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셋째로, 과연 각 민족들의 죄와 징벌이라는 주제가 아모스 환상들(7장과 8 장)과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의 원인이 y[Ev.pi (피쉬에/죄들)이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방 민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 성분인 ‘불’을 통한 징벌을

4) 편집사적인 연구 소개는 다음을 참고하라. W. H. Schmidt,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AW* 77 (1965), 174.

5) T. 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41–59. 보다 이른 시대의 편집비평적인 견해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H. Graf Reventlow, *Das Amt des Propheten bei Amos* (FRLANT 8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56–75; W. H. Schmidt, *유태*, 168–193.

받을 수밖에 없다.

1) 두로와 에돔 신탁 논쟁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먼저 두로와 에돔을 향한 신탁이 과연 유다 신탁과 밀접히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들이 이차적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편집사적으로 두로 신탁(1:9-10), 에돔 신탁(1:11-12), 그리고 유다 신탁(2:4-5)이 아모스 2장 10-12절과 연결해 볼 때 편집사적인 첨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형태상 두로와 에돔 신탁은 유다 신탁과 관련을 맺고 있다.⁶⁾

에돔에 대한 신탁과 관련하여 하디브(T. S. Hadjiev)는 주전 8세기 에돔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약해 있었다고 추론한다. 그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산헤립의 침략을 근거로 에돔이 국가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본문들을 포로기 시대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두로를 향한 신탁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즉, 그는 에돔 신탁의 중심을 이루는 “형제 언약”(1:9)에 대한 역사적 정황과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⁸⁾ 이 구절은 분명히 신명기 23장 8절(MT)의 정황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 임이니라”). 이러한 본문의 편집적인 정황과 관련하여 슈타인만(Steinmann)은 의미 있는 추론을 한다. 즉, 만일 다른 에돔과 두로와 유다의 본문들이 근원적이라면 그리고 어떤 마지막 편집자가 지금의 본문에 위치시켰더라면, 현존하는 본문간의 부딪히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아모스 1-2장의 이방 신탁에 대한 본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신탁의 순서 속에 있는 패턴들은 본문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

6)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96.

7) T. 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44f.

8) 윗글, 46.

음을 보여준다.⁹⁾ 분명히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유다에 대한 신탁은 모압 신탁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성사적이며 문학 비평적인 위치는 유일하거나 분명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방 국가 신탁 본문(1:3-2: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반사회적 태도’(eine militärisches und politisches Fehlverhalten)이다.¹⁰⁾ 이 주제가 유다 신탁 본문을 규정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다 신탁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반사회적 태도와는 관계없고, 오히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¹¹⁾ 이런 점에서 아켄바흐(R. Achenbach)의 접근은 매우 날카롭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법적인 통찰이나 종교적으로 분명한 윤리 중 어느 것이라도 전형적인 민족 공동체(Volksgemeinschaft)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¹²⁾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들은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규정들을 판단하고 입법화 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외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아모스의 본문들은 이러한 통찰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켄바흐의 논지에 따라서 유다 신탁 본문은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 두 본문들은 하나의 주제라기 보다는 두 가지의 주제로 서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다 신탁의 본문은 이차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제공하는 주요한 근거가 바로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제적인 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이다.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습법’

-
- 9) A. E. Steinmann, "Critical Notes: The Oder of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1:3-2:16", *JBL* 111 (1992), 689.
- 10) 참고. A. Phillips, "Prophecy and law", R. Coggins u.a. (ed.), *Israel's Prophe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17-232.
- 11) 참고. J. Barton,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 Study of Amos 1.3-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3f.
- 12) R. Achenbach, "Vertilgen-Töten-Vernichten (Ester 3,13). Genozid-Thematik im Esterbuch", *ZAR* 15 (2009), 287.

의 견지 위에서 볼 때,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 안에서 보여지는 에돔의 역할(1:6,9,11; 2:1)은 국가 간의 관련 속에서만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규정은 이스라엘 신탁 본문에서 죄의 내용으로 나타난다(2:6-8).

2) 형제 속성에 관한 논쟁

아모스 1장 9-10절에 나타나고 있는 ‘형제의 언약’은 분명 ‘형제로서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이 주제가 두로뿐만 아니라 에돔 신탁(1:11-12)에서도 가장 중심된 내용이다(11b):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¹³⁾

여기서 우리는 에돔 신탁이 다른 이방 신탁 본문의 첨가 또는 이차적인 본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에돔 신탁의 ‘형제로서의 속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모스 환상(7:1-3,4,6)과 연결된다. 이 아모스 환상 본문에서 야곱의 역할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르지만(W. Brueggemann)은 구성사적인 형식을 가정한다:

“에서/에돔 전승들의 문맥을 통하여 야곱 언급(7:2,5)을 이해하는 이 방법은 아마도 아모스 그 자신에게로 귀속되는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에돔 족속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돔 신탁(i 11f.)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군림하는 주인(i 6, 9)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언급은 ii 1에 있다. 거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야웨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서 발탁 되

13) 아모스 1장 11b절.

었다.“¹⁴⁾

에돔 신탁은 문학적으로 그리고 구성사적으로 이방 국가 신탁의 중심에서 구상되어지고 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그의 형제”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23장 8절의 배경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형제의 민족’(Brudervolk)이라는 사고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일관된 개념이다. 그러나 유다와 에돔에 대한 관계는 압도적으로 적대적 관계이며 실제로 그것은 에돔-이스라엘 관계와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대변하는 저술 내용이 될 수 있다.¹⁵⁾ 이처럼 적대 관계에 대한 근거들이 에스겔 35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겔 35:2, 3, 7, 15).

우리는 여기서 오경 비평의 적용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야곱과 에돔의 관계를 언급하는 새로운 주제를 제안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형제로서의 속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야곱-에돔의 언급은 신명기적인 계약신학의 범주에서 새롭게 고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방 국가 신탁에서의 에돔과 병행하는 야곱의 분명한 언급은 아모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단락에서 야곱의 언급은 재앙 예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주제(암 8:2)다. 흥미롭게도 포로기 이후 상황을 묘사하는 레위기 26장 42절에서 야곱은 ‘약속’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언급되고 있다. 분명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희망의 주제는 아모스 환상의 주제와는 다르다. 특히 야곱에 대한 재앙 예고는 오직 아모스 환상에서만 등장한다. 예언자 아모스는 “야곱의 미약함”이라는 암시를 통하여 처음 두 환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지금 국가 종교의 신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훼만이 역사를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¹⁶⁾

14) W. Brueggemann, “Amos’ Intercessory Formula”, D. E. Orton (e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Selected Studies from Vetus Testamentum* (Leiden: E. J. Brill, 2000), 45.

15) L. Peritt, “Sinai und Hereb”, *Deuteronomium-Studien*, (FAT 8; Tübingen: Mohr Siebeck, 1994), 41.

16) Ch. Gertz, “Die unbedingte Gerichtsankündigung des Amos”, F. Sedlmeier (ed.), *Gottes Wege suchend*.

여기서 아모스 환상들이 구성사적으로 전체 아모스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아모스 환상들이 아모스 3-6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다. 내용상으로 아모스 3-6장은 지진이라는 주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야곱”에 대한 언급은 제의 비판의 기능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다.¹⁷⁾ 이를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3:9-12 사마리아에 대한 선고

B. 3:13-15 פְּשָׁעֵיכֶם (프사임/죄들)를 범한 야곱, 즉 이스라엘

A'. 4:1-3 사마리아에 대한 선고

B'. 4:4-13 פְּשָׁעֵיכֶם (프사임/죄들)를 범한 이스라엘

B'문단은 문학적으로 성장한 모습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적인 편집의 모습에 대하여 그레츠가 주장하기를, 그는 4-5절과 12-13절은 창조 기사의 언어로 쓰였고, 이 부분은 벨엘과 길갈의 제의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와 달리, 6-11절의 재앙들은 계약 신학의 영역 위에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 마지막을 구성하는 저주의 목록들에 속하여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¹⁸⁾ 아모스 4장 4-13절에 있는 주요한 동사 파사(פָּשָׁא)는 북왕국의 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확장을 통하여 제의적인 문맥과 병행하는 야곱 전승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모스 환상들이 새로운 문학적 형태를 지닌 징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징벌의 내용들은 국가 조약 본문들에서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ürzburg: Echter Verlag, 2003), 160.

17)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6), 105.

18) S. Grätz,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BB 114 (Bodenheim: Philo, 1998), 247.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조약 파기 시 얻게 될 저주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영역은 분명히 계약 신학의 영역과 어울린다.¹⁹⁾ 아모스 4장에서 편집자는 “야곱”에 대하여 “야곱+**עֲשָׂה** (프사/죄)+**עָשָׂה** (에쉬/불)”이라는 표현이 죄에 대한 징벌로서 불이 임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약 신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조약 파기”(Vertragsbruch)라는 개념이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전승과 함께 사용되었고, 이 모습은 포로기 이전 후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²⁰⁾

3) 죄와 징벌에 대한 본문으로서 아모스의 환상들(7-8장)

아모스 전체의 문학적 구조 문제²¹⁾ 중심에 서 있는 아모스의 네 가지 환상(7-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²²⁾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심판 선포는 언약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발견되는 **בְּרִית** (베리트/계약)이라는 단어가 비록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²³⁾, 이 환상 본문들에서 새로운 징벌에 대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미 그레쯔(S. Grätz)가 논증한 것처럼, 북서 셈어 지역에서 발견되는 징벌하는 신은 주체자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한 땅이나 자연 현상의 모습이 그 징벌의 주체로 나타난다.²⁴⁾ 이런 의미에서 아모스 환상들은 고대 근동, 특히 북서 셈어 지역에서 사

19) U. Rütterswörden, “Bundestheologie ohne בְּרִית”, *ZAR* 4 (1998), 96f.

20) H. Spieckermann,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BET 7; Frankfurt u.a.: Peter Lang, 1978), 147f.

21)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권 (1999), 69-90. 그는 아모스 7-9장이 아모스 전체의 부록으로 규정한다. 그의 규정이 옳다면,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 나타난 계약 개념의 전통사적인(traditionskritisch) 견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 대한 계약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terswörden, *Bundestheologie ohne בְּרִית*, 85-99.

22) 아모스 9장의 환상보다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주제는 8장과 9장의 편집사적인 견해에 의하여 이차적인 아모스 본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다음을 참고하라.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241-248.

23) L. Per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36;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9), 135-139.

24) S. Grätz, *원글*, 167f.

용되는 조약 파기의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징벌들의 문학적 표현들과 비교되어 질 수 있다.

아모스 연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고대 근동의 조약 본문과의 유사성 문제다. 이미 볼프도 제기한 바 있는 아모스와 고대 근동의 문서들, 특히 아람어로 기록된 스피르 비문은 이 연구를 위한 단초 역할을 했다.²⁵⁾ 뤼터스베어텐(U. Rüterswörden)은 언약(ברית)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모스 7-8장을 계약(Vertrag)을 소개하는 본문으로 논증했다.²⁶⁾ 여기서 나타나는 징벌의 문학적 표현은 계약 체결의 의미보다는 계약 파기의 모습으로 뚜렷이 등장한다. 펜샴이 지적한 것처럼, 이 본문은 앗시리아의 조약 본문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²⁷⁾ 또한 스피르 본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²⁸⁾ 이 두 조약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징벌에 대한 보고들이 비록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한 계약파기의 전승을 수용하고 있음이 중요하다. 뤼터스베어텐의 논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약 본문과의 유사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²⁹⁾

내용	아모스	북서 지역	북동 지역
먹어치우는 메뚜기	7:1f.	KAI 222 A 27	VTE §§ 47, 85; SAA II 2, VI, 1
불	7:4	KAI 222 A 37	VTE § 89
다림줄	7:7f.		VTE § 65
애곡	8:3a	KAI 222 A 29	SAA II 2, VI, 19
버려진 시체	8:3b		VTE §§ 41, 47, 56

25) H. W. Wolff, *윗글*, 176.

26) U. Rüterswörden, *윗글*, 96ff.

27) F. C. Fensham, "Common Trends in Curses of the Near Eastern Treaties and Inscriptions Compared with Maledictions of Amos and Isaiah", *ZAW* 75 (1963), 155-175.

28) U. Rüterswörden, *윗글*, 96ff.

29) *윗글*, 97f. 약어에 대하여 참고하라. "KAI"는 돈너와 뢰리히(H. Donner and W. Röllig)의 책 "Kanaanäisch und aramäische Inschriften"에서 왔으며, "VTE"는 화이즈만(D. J. Wiseman)의 의해서,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라 불렸고(1958), "SAA"는 "State Archives of Assyria"의 약어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행위-회복-관계’(Tun-Ergehenszusammenhangs)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는 징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의 영역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 신만이 다룰 수 있는 징벌의 유형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은 이방 국가 신탁 보고와 관련된 본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신탁 본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3. 법적인 역할로서의 ‘서너 가지 죄들’에 관한 논쟁

아모스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서너 가지 죄들’을 표현하고 있다: 천치사(על, 알)+세 가지(שלוש, 슬로사)+국가 이름+접속사 ‘그리고(waw)’+네 가지(ארבע, 아르비아)+부정어(לא, 로)+동사(בוש, 히필형 슈브). 이 숫자들은 기수로 사용되고 있어서, 죄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숫자의 형태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예언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모스서에서 שבע(폐샤/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수 잡언’과 함께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분명히 שבע(폐샤/죄)는 법적인 용어로서 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징벌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징벌은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에서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본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³⁰⁾ 흥미롭게도 이 용어 שבע(폐샤)는 신명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명기 역사가의 본문들과 예언서들 그리고 지혜 문학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³¹⁾ 우리는 이 용어가 아모스 본문 안에서 신명기사가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암 1-2장; 3:14; 4:4; 5:12). 특히 아모스 3-4장에서 벨엘과 길

30) J.-W.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19-123.

31) 참고, W. Rudolph, *Joel-Amos-Obadja-Jona*, KAT 13/2 (Gütersloh: Gütersloh Verlagshaus, 1971), 129. 장 10:12, 19; 12:13; 17:9, 19; 18:19; 19:11; 28:2, 13, 21, 24; 29:6, 16, 22.

같이리는 북왕국 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야곱의 집’(암 3:13)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면서, 은유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 야곱의 집은 아모스 환상 본문들(7-8장)에서 징벌을 보도하는 언급과 함께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בריית (베리트/계약)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 상황의 통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의 본문’이거나 또는 ‘계약 파기의 본문’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소위 문예학(Literaturwissenschaft)에서 “의미 전달의 제로 위치”(bedeutungs-tragende Nullposition)로 불리는 방법을 통하여 감춰진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³²⁾ 이런 점에서 이사야1장은 매우 의미있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פשע(죄)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베커(U. Becker)는 이사야1장 2-20절을 계약신학적인 배경 위에서 신명기의 본문들과 병행하여 연구하여 신명기적인 계약신학의 형태로 결론을 내렸다.³³⁾ 그러나 병행되는 절들을 세밀히 검토한 뢰터스베어텐은 오히려 이 본문들이 계약 체결의 내용 보다는 계약을 파기하는 모습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 본문을 계약 파기를 배경으로 하는 재판 행위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규정했고,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기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전 701년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³⁴⁾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야1장의 본문은 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24절 이하에서 징벌(Strafe)을 언급하고 있고, 문학적 단위로서의 마지막을 형성하는 결론 부분(2:2-5)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사 2:5)을 소개하므로 계약파기의 모습으로 이사야서의 서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숫자 삼과 사가 나란히 나타나는 지혜문학의 형태는 병행구로서 두 문장이

32) M. Titzmann, *Strukturelle Textanalyse* (UTB 582;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77), 230ff.

33) U. Becker, *Jesaja- von der Botschaft zum Buch* (FRLANT 17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185.

34) Rütterswörden, *읽기*, 88f.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 즉 두 가지 숫자들은 두 문장으로 나란히 표현되고 있다. 분명히 아모스서는 문체상 다른 수 잠언들과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의 문체는 두 가지 숫자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술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방 국가 신탁에서 사용되는 아모스서의 수 잠언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즉 그것은 $3+4=7$ 이라는 공식의 결과를 이끌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각각 이방 국가의 죄의 형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국한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분명 유일하게 일곱 가지로 나열되고 있다.³⁵⁾ 이 일곱 가지 죄의 지적은 아모스 2장 14-16절에서 일곱 가지의 징벌의 결과로 유도된다. 결과적으로 ‘서너 가지 죄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예언자의 말로서 지혜문학적 의미와는 다른 유형의 문체를 보여준다.

4.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의 문학 비평적 견해

이방 국가 신탁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도 논쟁적이다. 일반적으로 1장 3절-2장 16절의 여덟 본문들 중 어떠한 본문이 원래의 본문인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³⁶⁾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세 부분으로 구성된 순환 사이클(Zyklus)

예레미야는 아람 국가와 암몬 국가 신탁이 이스라엘 국가 신탁과 연결되며, 블레셋과 모압 국가 신탁이 유다의 관점과 연결된다고 보았다.³⁷⁾

b.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순환 사이클(Zyklus)

35) W. Rudolph, *위글*, 128f.

36) 참고. C. Fischer, *Die Fremdvölkersprüche bei Amos und Jesaja*, BBB 136 (Berlin: Philo, 2002), 40-66; D. U. Rottzoll,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6), 40f.

37) J. Jeremias, "Zwei Jahre vor dem Erdbeben (Am 1,1)", ders.,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78.

편집사적 지평에 의해서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 중 두로, 에돔, 그리고 유다 신탁 본문들이 후대에 추가적으로 삽입되었다는 견해이다.³⁸⁾

c.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 순환 사이클(Zyklus)

원초적으로 유다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국가 신탁으로 본문이 구성되었다는 견해이다.³⁹⁾

위 방법들 중 세 번째가 매우 흥미롭다. 내용상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본문들은 유다를 제외하고 “국제적인 관습법”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은 문학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소위 바울(S. M. Paul)은 체인 형식의 단어배열 방법을 통하여 본문들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⁴⁰⁾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본문들의 연관성을 재배열할 수 있다:

Aram 1,5 Gaza 1,8	והכרתי יושב מ... ותומך שבט מ והכרתי יושב מ... ותומך שבט מ
Gaza 1,6 Tyrus 1,9	על-הנלותם גלות שלמה להסניר לארזים על-הסנירם גלות שלמה לארזים
Tyrus 1,9 Edom 1,11	ברית אחים אחיו
Edom 1,11 Ammon 1,13	על-דרכו בחרב אחיו ושחת רחמיו על-בקעם הרות הגלעד
Ammon 1,14-15 Moab 2,2-3	ושריו / בתרועה וכל-שריה / בתרועה

38) J. Wellhausen, *Die kleine Propheten* (Berlin: G. Reimer, ⁴1963), 69–72; W. H. Schmidt, *윳글*, 174ff.; H. W. Wolff, *윳글*, 170ff.; K. Koch, *윳글*, 110ff.; J. Wöhrle, *윳글*, 93–97; T. S. Hadjiev, *윳글*, 41–53.
39) H. N. Rösel, "Kleine Studien zur Entwicklung des Amosbuches", *VT* 43 (1993), 88f.; S. M. Paul, "Amos 1.3–2.3: A concatenous Literary Pattern", *JBL* 90 (1971), 397–403.
40) S. M. Paul, *윳글*, 397f.

위에서 재구성된 본문 간의 연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국가 신탁 본문들은 통일성을 갖춘 본문이었다는 것이다. 유다 국가 신탁을 제외한 일곱 국가 신탁은 “서너 가지 죄들”이라는 주제로 일제히 이스라엘 국가 신탁을 향하여 있다. 왜냐하면 “서너 가지 죄들”의 항목들이 이스라엘 국가 신탁을 제외하면 특별히 의미 있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신탁의 본문의 상황과 죄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징벌의 모습을 추적해 보기로 하자.

5. 이스라엘 신탁 본문: 2장 6-8절과 14-16절

이 본문(2:6-16)은 문학적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즉 아모스 2장 6-8절과 (13)14-16절 사이에 있는 아모스 2장 9-12절은 후기 신명기사가적인 편집자에 의하여 구원사적인 주제로 쓰이고 있다.⁴¹⁾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체 국가 신탁 본문에서 이스라엘 신탁 본문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특한 문학적 표현 ‘서너 가지 죄’가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이스라엘의 죄들(2:6-8)과 죄에 대한 일곱 가지 징벌 선고(2:14-16)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필자는 ‘일곱 겹 유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일곱 겹의 징벌이라는 문학적 유형은 스피르 비문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흔적이다.⁴²⁾ 이러한 구성과 본문의 구조가 고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 분명 이러한 구조는 법이나 계약 파기의 의미와 함께 암시되어졌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전체적인 문학적 구성을 살펴보자.

1) 2장 6-8절

이 본문(2:6-8)은 ‘메신저 공식’ (Botenspruchformel)인 ‘코 아마르 야웨’ (כֹּה אָמַר יְהוָה)로 시작한다. 이 양식은 이방 국가 신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41) H. N. Rottzoll, *윗글*, 68.

42) 참고, Jong-Won Choi, *윗글*, 20-73.

측면에서 어떻게 아모스 2장 6b-8절이 형태상 그리고 내용상 구성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모스 2장 13(14)-16절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시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이 본문(2:6b-8)이 이차적으로 아모스서만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인 ‘서너 가지 죄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지 또는 원초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문학적인 통일체(eine selbs tändige literarische Einheit)였는지는 논쟁적이다.⁴³⁾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서너 가지 죄들’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의 편집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일곱 겹의 특성을 보여주는 복서 셈어 전통 아래 놓여있다는 것이다.⁴⁴⁾ 그리고 이 견해는 일곱 가지로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징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 본문의 문학적 내용은 다음 일곱 가지의 형태로 구성 된다.

	절	내 용
I	6ba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다 עַל-מִכְרָם בְּכֶסֶף צְדִיקִים
II	6bβ	(그들이)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다 וְאַבְיֹן בְּכַבֵּר יְגָלִים
III	7aα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처넣어 밟다 הַשָּׂאִיִּים עַל-עַפְר־אֲרֶץ בְּרֹאשׁ הָלֵךְ
IV	7aβ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법적인) 길을 굽게 한다 וְרַגְלֵי עֲנָוִים יִטּוּ
V	7b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다 וְאִישׁ וְאָבִיו יָלְכוּ אֶל-הַנְּעוּרָה לְמַעַן חַלֵּל אֶת-שֵׁם קְדָשִׁי
VI	8a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다 וְעַל-בְּגָדֵי הַבָּלִים יִטּוּ אֲצֵל כָּל-מִזְבֵּחַ
VII	8b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다 וַיִּין עֲנוּשִׁים יִשְׁאוּ בַּיַּת אֱלֹהֵיהֶם

43) 참고, H. N. Rottzoll, 윗글, 61. 최근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공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제22권 1호 (2016년 3월), 62-101.

44) 이 표현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최종원, "복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ע)", 『Canon & Culture』 제6권 1호(통권 11호; 2012 봄), 123-152.

I에서 6ba절을 시작하는 문학적 공식 “מכרה+על”은 다음 절인 6bβ절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공식은 이방 국가 신탁에서 사용하는 공식이다. ‘의인과 빈민’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위치, 즉 시민과 노예 사이에 놓여있는 국가적인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 내용은 아모스서의 구성사적인 측면에서 8장 14절 이하에서 다시 편집사적인 관점으로 전체 아모스서의 구성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 아모스 8장 14절 안에서 분사구 형태인 7a절의 내용은 6bβ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8장 4-6절은 아모스 2장 6b절과 7a절을 따르고 있다.

7a절과 7aβ절의 연관성은 이사야 10장 2절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거기서 ‘달림’(מלח)과 ‘아나빔’(מבנות)은 동사 ‘나타’(נטה)와 함께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 공식 ‘달림’+‘나타’는 왕정시대 공직자의 법적인 공식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⁵⁾

7b절의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라는 문형은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한다. 벨하우젠은 7a절이 6b절과 연결되고, 7b절은 8절에 속한다고 보았다.⁴⁶⁾ 그러나 하디브(Hadjiev)는 이 표현 ‘...에게 들어가다’(יָלַח אִלַּי)이 아모스 2장 4절의 ‘...를 따르다’(אָהַרְיָ אַחֲרַי)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2장 7b절을 삽입된 이차적인 본문으로 간주한다.⁴⁷⁾ 그러나 ‘...를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 13장에서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배교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배교하는 행위는 신명기 13장에서 죽음의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배교를 조장하는 자들이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디브가 말하는 것처럼, 2장 7b절은 여호와와의 배교를 표현하는 구절이 아니라, 사회적 부도덕성을 가리키는 구절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스텔리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 여인’은 사회적이며 법적으로 약자로 취급되며, 이러한

45) M. Schwantes, *Das Recht der Armen* (BET 4; Frankfurt u.a.: Peter Lang, 1977), 103.

46) J. Wellhausen, *원문*, 72.

47) T. S. Hadjiev, *원문*, 48.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⁸⁾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의미가 신명기에서 독특하게 취급되는 ‘비아르타 법’(Bi'arta- Gesetz)에서 발견된다.⁴⁹⁾ 여기서 ‘한 여인’은 아모스 2장 7b절의 바로 그 여인이다.

8a절은 주제적으로 2장 7aβ절과 비교될 수 있다. 왜냐하면 2장 7bβ절의 동사 ‘나타’(נִתַּן)는 의미상 8a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의적인 장소 ‘제단 옆’이라는 표현은 8b절의 ‘신전과 연결된다. 8a절의 ‘옷을 전당잡다’(לִבְּרֵי מִבְּרֵי)라는 표현은 신명기 24장 6절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잠언 6장 1-5절; 11장 15절; 17장 18절; 22장 26절 이하에서 고대 근동의 법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이며 구문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유다 왕국 말기 시대로 추정되는 메짜드 하샤브야후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⁰⁾

이스라엘의 일곱 가지 죄의 나열은 직접적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14-16절의 일곱 가지 징벌로 나타난다.

2) 2장 14-16절

이 본문은 징벌을 예고하는 일곱 가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징벌 예고들이 자신의 용어들과 문법적인 통일체로 구성되어있는지가 주요한 논쟁이 된다.⁵¹⁾ 이러한 질문들은 문법적인 성장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편집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14b절과 15aβ절은 앞선 절을 다

48) H.-P. Stähli, *Knabe-Jüngling-Knecht. Untersuchungen zum Begriff na'ar im Alten Testament* (BET 7; Frankfurt u.a.: Peter Lang, 1987), 245.

49) 이 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terswörden,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Helsinki: Vandenhoeck & Ruprecht, 1996), 223-241.

50) 참고. U. Rütterswörden, *Das Deuteronomium im Lichte epigraphischer Zeugnisse*, C. Karrer-grube u.a., *Sprachen-Bilder-Klänge. Dimensionen der Theologie im Alten Testament und in seinem Umfeld* (AOAT 359; Münster: Butzon & Bercker, 2009), 241-256; 소형근, "메짜드 하샤브야후 비문 이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과 재판관들』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184-205.

51) 참고. W. Rudolph, *룻글*, 148ff.; Rottzoll, *룻글*, 71-80; Hadjiev, *룻글*, 3-9, 52f.

시 반복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15aβ절은 다시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한다.⁵²⁾ 우리는 여기서 통일된 문학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 있다.

	절	내 용
I	14aα	그리고 빨리 달리는 자에게 도망침이 잃어버리게 된다 וְאִבֵּד מְנוּסִים מִקֶּל
II	14aβ	그리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내지 못한다 וְהִזְקִי לֹא-יֵאֱמְרוּ כֹחַ
III	14b	그리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וְגִבּוֹר לֹא-יִמְלֹט נַפְשׁוֹ
IV	15aα	활을 가진 자도 서지 못한다 וְחַפֵּשׂ הַקֶּשֶׁחַ, לֹא יַעֲמֹד
V	15aβ	발이 빠른 자도 피하지 못한다 וְקֵל בְּרַגְלָיו, לֹא יִמְלֹט
VI	15b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וְרֹכֵב הַסּוּס, לֹא יִמְלֹט נַפְשׁוֹ
VII	16	용사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된다 וְאִמְיִן לִבּוֹ בְּגִבּוֹרִים עָרוֹם וְנִסּ בַּיּוֹם הַהוּא

13절의 ‘히네’(hNeh)-문장은 이어지는 14-16절과 함께 종속관계로서 강조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장이 아모스 환상 본문들(7:1.4,7; 8:1)과 유사한 문학적 특징으로 관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모스 9장 1절은 선행하는 네 가지의 환상 본문들의 표현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관점은 아모스 8장 4절 이하부터 아모스 9장까지 이어지는 본문들로 아모스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듯이 잘 구성된 편집의 흔적들을 통해서 논증이 가능하다.⁵³⁾

주목할 만한 점은 아모스 2장 14-16절은 전쟁 선포를 통하여 내용상 비슷한

52) H. W. Wolff, *유타*, 164; Ch. Levin, *유타*, 279.

53) 이 논증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Jong-Won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241-248.

연속물을 새롭게 반복적으로 창조하고 있다.⁵⁴⁾ 이 흐름은 처음 시작되는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무너짐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 아모스 신탁의 클라이막스는 죄에 대한 여호와와의 징벌 신탁에 있다. 분명히 계약 파기라는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이 징벌의 무게는 아모스 환상과 연결된다. 여기서 일곱 가지 (또는 일곱 겹) 징벌 보도는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일곱 가지 (또는 일곱 겹) 죄의 근거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조직망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본문은 교차적 배열법(Chiasmus)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a1. אבד מנוס מקל	נוס (14aa)
a2. חזק לא־אמוץ כחו	אמוץ (14aβ)
b. נבור לא־ימלט נפשו מולט	נפש (14b)
c. חפש הקשת לא יעמוד	חפש (15aa)
c'. קל ברנליו לא ימלט	קל (15aβ)
b'. רכב הסוס לא ימלט נפשו	מולט (15b)
a2'. אמוץ לבו בנבורים	אמוץ (16a)
a1'. ערום ינוס	נוס (16ba)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제어들이 서로 잘 짜여진 하나의 양식으로 그 중심에서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의 문학적인 통일성이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체의 나열은 a1-a2-b-c-c'-a2'-a1'로 구성되고, 이러한 문장들은 단어적으로 교차배열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16절은 첫 문장인 a1과 두 번째 문장인 a2와 동시에 연결되고 있다. 14b절과 15b절은 인칭접미어 3인칭 남성 단수로 첨가되고 있다. 본문의 가장 중심에 15aa와 15aβ절이 서 있다.

많은 학자들이 볼프(H. W. Wolff)의 논제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

54) J. R. Wood, *Amos in Song and Book cultur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37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26f.

엘의 최초의 형태가 이방 민족 신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⁵⁵⁾ 그의 논제는 아모스 1-2장의 이방 민족 신탁과 이스라엘 신탁 본문에 대한 징벌이 분명히 아모스 시대로부터 왔고, 그 내용은 스피르 I A 37-42의 교감적인 주술 행위들 (sympathetische Zaubehandlungen)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혔다.⁵⁶⁾ 이 문학적 양식은 숫자 칠과 함께 일곱 겹의 형태로 계약 파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서 그 뚜렷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⁵⁷⁾ 숫자 칠은 이스라엘 징벌 본문에서 a1'와 a2'가 분리된 문장이 아닌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a1'은 독립적인 문장으로 성립할 수 없고 오직 a2'와 함께 공존하게 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모스 1-2장의 구성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은 신명기 사가적인 관점에서 쓰인 유다 본문을 제외한 일곱 나라에 대한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대 근동의 계약 파기 본문, 특별히 북서 셈어 영역인 스피르 조약 비문과의 서기관적 전통 아래 있는 신명기 계약 사고와 매우 근접해 있다.⁵⁸⁾

이 본문의 통일성은 문학적으로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활용되는 ‘포로됨’(Exilierung)이라는 주제로 그 시기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본문은 분명 전쟁 상황 속에 있고, 주전 8세기 앗시리아 왕국의 서부 팽창 정책에 관한 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⁵⁹⁾ ‘포로됨’은 아모스 1장 3-5절, 6-8절, 9-10절, 13-15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과는 달리 1장 13-16절은 단지 전쟁의 위협이라는 문맥 속에 있다. 전자의 내용들은 “사건 이후 예언”(vaticinium ex eventu)이라는 질문과 병행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아모스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모스 2장 14-16절에서 포로됨에 대한 예언

55) J. Wöhrle, 위클리, 98.

56) H. W. Wolff, Joel und Amos, 176.

57) 최중원, “북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쉼바”, 123-151.

58) Ibid..

59) 참고,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 GAT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346f.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포로됨에 대한 부재”라는 주제는 “침묵으로부터의 근거”(argumentum e silentio)라는 사고를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견지와 함께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⁶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근접하여 있다. 숫자 칠과 일곱 겹의 문학적 형태의 신학적 의미가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방 국가 신탁과 이스라엘 신탁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6. 나가기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보도는 아모스의 ‘서너 가지 죄들’이라는 문학적 표현 양식을 통하여 재해석 될 수 있다. 이 양식은 소위 수 잠언으로 해석되는 지혜 문학의 영향아래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고대 근동과 북서 셈어 영향아래 있는 계약 파기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신학아래 있는 신명기 28장이 고대 근동의 계약 파기의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북서 셈어의 서기관적 전통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서의 신학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아모스 1-2장은 유다 심판 보도를 제외한다면, 전체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 보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나라는 죄에 대한 징벌로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 보도가 점층적으로 이스라엘 심판 본문에 집중하고 있다. 마치 북서 셈어의 계약 파기 문서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보도 역시 전체 심판 보도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일곱겹의 형태로 잘 짜여진 문학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들과 죄에 대한 징벌의 문학적 표현들은 분명히 북서 셈어 전통을 이어받은 신명기 28장의 계약 파기 본문

60) J. Ch. Gertz, "Military Threat and Concept of Exile", E. Ben Zvi und ch. Levin (ed.), *The Concept of Exile in Ancient Israel and its Historical Contexts*, BZAW 404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0), 22.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

아모스 1-2장은 아모스서 전체 구성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모스 환상 본문 인 7-8장과 연결되고 있다. 아모스 환상 본문들 역시 그 문학적인 표현과 내용들이 계약 파기 본문과 관련되고 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9장에 이르는 편집사적인 해석에 의하여 아모스 1-2장과 아모스 환상 본문은 하나의 문학적인 통일체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은 신명기 28장이 이어받고 있는 복서 셈어의 서기관적 전통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통은 계약 파기 상황에 나타나는 숫자 칠과 일곱 겹의 문학적 형태로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

7. 참고문헌

소형근, “메짜드 하샤브야후 비문 이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 재판관들」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184-205.

차준희 편저, 『구약예언서 이해』(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권 (1999), 69-90.

최종원, “복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א)”, 「Canon & Culture」 제6권 1호(통권 11호; 2012 봄), 123-152.

최종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3권 4호 (2017년 12월), 119-149.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공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22권 1호(2016년 3월), 62-101.

Achenbach, R., “Vertilgen-Töten-Vernichten (Ester 3,13). Genozid-Thematik im Esterbuch”, *ZAR* 15 (2009), 282-315.

Barton, J.,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 Study of Amos 1.3-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Becker, U., *Jesaja- von der Botschaft zum Buch* (FRLANT 17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 Bruegemann, W., "Amos' Intercessory Formula", D. E. Orton (e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Selected Studies from Vetus Testamentum* (Leiden: E. J. Brill 2000), 41-55.
-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 GAT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346f.
- Fischer, C., *Die Fremdvölkersprüche bei Amos und Jesaja*, BBB 136 (Berlin: Philo, 2002).
- Gertz, J. Ch., "Die unbedingte Gerichtsankündigung des Amos", F. Sedlmeier (ed.), *Gottes Wege suchend.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ürzburg: Echter Verlag, 2003), 153-170.
- Gertz, J. Ch., "Military Threat and Concept of Exile", E. Ben Zvi und ch. Levin (ed.), *The Concept of Exile in Ancient Israel and its Historical Contexts* (BZAW 40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0).
- Grätz, S.,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BB 114; Bodenheim: Philo, 1998).
- Hadjiev, T. S.,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Jeremias, J., "Zwei Jahre vor dem Erdbeben (Am 1,1)",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edekaprophetens* (FAT 13; Tübingen:

- Mohr Sieback, 1996), 172-182.
- Koch, K.,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alen Formgeschichte. Teil 1-3*, AOAT 30 (Neukirchen-Vluyn: Butzon & Bercker, 1976).
- Levin, Ch., Das Amosbuch der Anawim, ZThK 94 (1997), 407-436; *Fortschreibungen*, BZAW 316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267-290.
- Paul, S. M., "Amos 1.3-2.3: A concatenous Literary Pattern", JBL 90, 1971, 397-403.
- Perlitt, L.,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36;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9).
- Perlitt, L., "Sinai und Hereb", ders., *Deuteronomium-Studien* (FAT 8; Tübingen: Mohr Siebeck, 1994), 39-49.
- Phillips, A., "Prophecy and law", R. Coggins u. a. (ed.), *Israel's Prophe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17-232.
- Graf Reventlow, H., Das Amt des Propheten bei Amos (FRLANT 8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Rösel, H. N., "Kleine Studien zur Entwicklung des Amosbuches", VT 43 (1993), 88-101.
- Rottzoll, D. U.,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6).
- Rudolph, W., *Joel-Amos-Obadja-Jona*, KAT 13/2 (Gütersloh: Gütersloh Verlagshaus, 1971).
- Rüterswörden, U., "Bundestheologie ohne בריית", ZAR 4 (1998), 85-99.
- Rüterswörden, U.,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Helsinki: Vandenhoeck & Ruprecht, 1996), 223-241.
- Rüterswörden, U., "Das Deuteronomium im Lichte epigraphischer Zeug-

- nisse", C. Karrer-Grube u. a. (ed.), *Sprachen-Bilder-Klänge. Dimensionen der Theologie im Alten Testament und in seinem Umfeld* (AOAT 359; Münster: Butzon & Bercker, 2009), 241-256.
- Schmidt, W. H.,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Propheten und seinen Sammlern", *ZAW* 77 (1965), 168-193.
- Schwantes, M., *Das Recht der Armen* (BET 4; Frankfurt u. a.: Peter Lang, 1977).
- Spieckermann, H.,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Gottes Liebe zu Israel* (FAT 33; Tübingen: Mohr Siebeck, 2001), 141-153.
- Stähli, H.-P., *Knabe-Jüngling-Knecht. Untersuchungen zum Begriff na'ar im Alten Testament* (BET 7; Frankfurt u. a.: Peter Lang, 1978).
- Steinmann, A. E., "Critical Notes: The Oder of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1:3-2:16", *JBL* 111 (1992), 683-689.
- Titzmann, M., *Strukturelle Textanalyse* (UTB 582;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77).
- Wöhrle, J.,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 Wolff, H. W.,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AT Bd. XI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5).
- Wood, J. R., *Amos in Song and Book Cultur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37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검색어

아모스 1-2장

숫자 칠

계약 신학

이방 국가 신탁

아모스서의 구성과 편집

Reading Amos as a Category of the Deuteronomistic Covenant Theology: 'three transgressions and four' in the Book of Amos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 Theol.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ree or four things' in Amos 1-2 relates to the punishment of Israel in the sevenfold. In particular, this expression is very similar to the theological view of the Deuteronomist as a contract thought based on the north-western Semitic region.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constructivism, this idea proves that Amos 1-2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text of visions in Amos 7-8.

Up to now, the expression of 'three transgressions and four' in Amos has been understood as a wisdom literary element, but this result does not give any answers to the book of Amos from the view of constructivism. On the other hand, judgment reports on Israel and neighboring nations can be re-interpreted through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ree and four sins.' Rather than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wisdom literature, this form,

www.kci.go.kr

which has been interpreted as the so-called number proverb,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punitive concept of a breach of the trea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north-western Semitic region.

Amos 1-2 consists of judgment reports on seven nations except Judah. Each nation is judged by "fire" as a punishment for sin. The judgment report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the text of the judgment on Israel. Just as the judgment reports appear to be similar to the north-western Semitic treaty document, the judgment report on Israel is also located at the end of the judgment reports of the whole pagan countries. They also show a well-organized literary composition in a seven-ply form. The tradition is a concept of punishment that appears in a breach of contract and that is expressed in a literary form of the number seven and sevenfold schema, and it reflects the pre-exilic situation.

Keywords

Amos 1-2

number seven

covenant theology

oracles against the nations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 투고일: 2018년 6월 30일
- 심사일: 2018년 7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9일

www.kci.go.kr